



기후가 경제 새로운 의정부

경기 의정부(갑) 국회의원

박지혜

더불어
민주당

보도자료

(회관)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, 국회의원회관 735호 T. 02-784-3174 F. 02-6788-6985

(지역)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9번길 10, 선진빌딩 302호 T. 031-875-0410 F. 031-875-0414

배포일 : 2024년 10월 7일(월)	담당 : 이진선 선임비서관	보도일 : 배포즉시 보도요청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국내 태양광 제조업체 수 최근 6년간 46개 → 23개로 반토막

- 국내 신규 태양광 보급률 202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
- 내수 부진에 관련 제조업체 수도 급감
- 박지혜 의원 “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보호 및 육성 위한 지원 필요”

전 세계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,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 수가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심지어 태양광 가치사슬 중 잉곳과 웨이퍼 업체의 경우 2022년 이후 국내 자체 공급망이 단절된 상태다.

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(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)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2017년 총 46개였던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 수가 2022년 23개로 급감했다.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있는 모듈 부문의 경우 2017년 33개에서 2022년에 20개로 감소했다.

태양광 발전 소재 및 설비 제조업의 수출액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. 2017년 3조 4,747억 원이었던 수출액은 2021년 1조 3,026억 원으로 5년 만에

2조 원 이상 줄었다. 2022년 2조 3,802억 원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, 여전히 2017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.

한편 외국산 모듈의 공세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2024년에는 처음으로 국내 신규 태양광 설치량 중 중국산 모듈 사용량이 국산 모듈 사용량을 앞질렀다.

박 의원은 “국내 태양광 산업의 확대를 위해 국내 공급망을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” 며, “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법제화 등 안정적이고 일관된 보급 정책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,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, 조세 혜택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” 고 강조했다. <끝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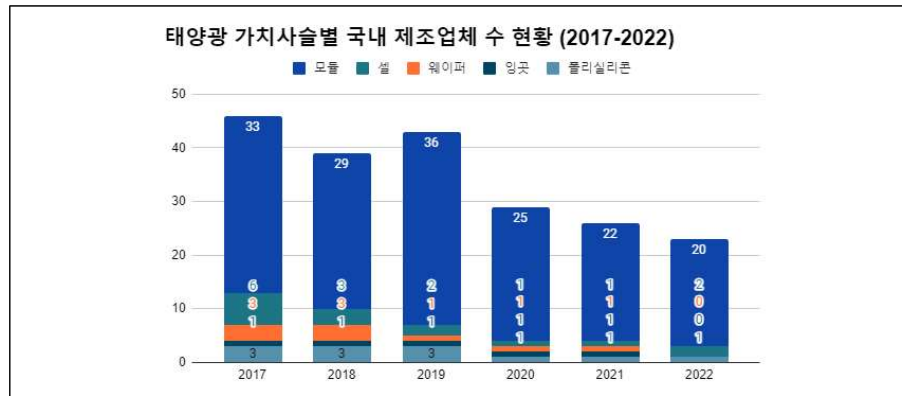
[태양광 가치사슬별 국내 제조업체 수 현황 (2017-2022)]

(단위: 개)

품목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
폴리실리콘	3	3	3	1	1	1
잉곳	1	1	1	1	1	0
웨이퍼	3	3	1	1	1	0
셀	6	3	2	1	1	2
모듈	33	29	36	25	22	20
합계	46	39	43	29	26	2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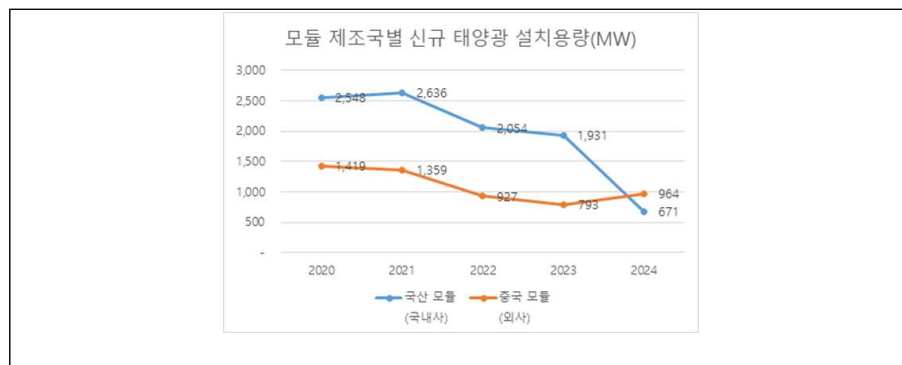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[태양광 가치사슬별 국내 제조업체 수 현황 (2017-2022)]

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[모듈 제조국별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(MW)]



자료: 한국에너지공단

[태양광 발전 소재 및 설비 제조업 수출액]

(단위: 억 원)



* 출처: 한국에너지공단 '2022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' (23.12.)